

익산시, '안전하게 식탁까지'

시민 주체 법정문화도시 '조성'

익산시, 전문가 15인 구성 제1차 문화도시추진위원회 개최

익산시는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시민 중심의 주체적인 참여로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11일 시청 상황실에서 제1차 익산시 문화도시 추진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오택림 익산시장 권한대행의 위촉장 수여와 법정문화도시 지정 과정과 지정 이후 추진 상황에 대한 보고, 올해 문화도시 조성사업 계획에 대한 심의·의결, 기타 토의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한 위원들은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주고받으며 문화도시추진위원회가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위원회는 올해 중점적으로 시민 주도 문화도시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주민들과 문화예술인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문화도시 거점 공

간 조성에 적극적인 추진을 당부했다. 법정 문화도시 지정 이후 새롭게 구성된 익산시 문화도시 추진위원회는 문화도시 추진을 위한 공식적 의사결정 기구로 공무원, 시의회, 문화예술인, 시민단체 등 분야별 전문가 15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원회는 앞으로 2년간 도시 내 다양한 분야와 문화도시를 연결하고, 문화도시 조성사업 추진 전반에 관한 사항을 폭넓게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오택림 시장 권한대행은 "시민의 주도적인 활동으로 도시 문화를 바꿔가는 사업만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이루어진 문화도시 추진위원회가 적극적인 소통과 연대로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며 "문화도시 사업을 통해 익산이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기자

로컬푸드 모니터링단 운영, 잔류농약 검사비 지원 등 안전성 수시 점검

익산시는 시민들에게 안전한 로컬푸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안전망을 구축한다.

시는 로컬푸드 모니터링단 운영을 통해 로컬푸드직매장의 운영 전반에 대해 소비자의 눈으로 컨설팅을 진행하며 진열된 농산물을 수거해 전문 인증기관에 잔류농약 검사를 의뢰하는 등 건강 파수꾼이 되어 로컬푸드 농산물의 신선도와 안전성을 수시 점검한다.

로컬푸드 모니터링단은 매년 공모로 도내 소비자 단체를 모집해 선정하고 소비자의 안전 식탁을 책임진다.

지난 2018년부터 운영된 모니터링단은 당초 1500만원에서 올해는 4000만원으로 점차 사업비를 늘려가며 소비



자의 신뢰를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로컬푸드 모니터링단 운영을 통한 잔류농약 검사 건수는 2018년 100여 건에서 올해 230여 건으로 확대하여 이번 달부터 더욱 강화된 기준으로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시는 모니터링단 운영 외에 식탁에 오르는 로컬푸드 농산물의 안전을 지켜내기 위해 안전 유통 지원사업을 별도로 추진해 200여 건의 직매장 출하 농산물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는 등 로

컬푸드직매장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직매장에 품질·안전관리 전담 직원을 배치해 월 평균 500여건 이상의 로컬푸드 출하 농산물 간이 검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더불어 시 주관의 모니터링단과 별개로 도 주관의 모니터링단을 병행 운영하여 로컬푸드 진열상품의 안전성에 대한 이중삼중의 거름망을 설치해 소비자를 위한 로컬푸드의 신선도와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촘촘한 안전 장치를 마련했다.

최봉섭 미래농정국장은 "안전먹거리에 대한 중요성이 강화되고 있고 이런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로컬푸드 품질관리 및 직매장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기자

익산형 근로청년수당 지원 확대

익산 거주·타 지역 중소기업 청년까지... 매월 30만원씩 3년간 총 1100여명

익산시는 지역 근로 청년들의 자립 지원으로 안정적 미래 준비를 돕는다. 시는 중소기업 근로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추진하는 익산형 근로청년수당 지원사업에 올해 285명의 신규 대상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익산형 근로청년수당은 매월 30만원씩 최대 3년간 익산시민 다이로움카드로 지급되며 지난해 선정자를 포함해 총 1,100명이 지원을 받게 된다.

전국 지자체의 유사한 사업 중 가장 파격적인 규모로 화제를 모은 익산형 근로청년수당은 전국 중소기업 평균

보다 낮은 급여를 받는 지역 청년들의 자립 기반을 형성하는 사업으로 자리 매김했다.

시는 지난 3월부터 수당 신청자 356명에 대해 연령, 주소, 근로 급여조건을 검토하고, 유사 지원 사업 중복 여부와 세금 체납 여부까지 확인 후 285명의 대상자를 최종 선정 발표했다.

근로청년수당은 5월부터 이달 말에 지급되며 6월부터는 익월 10일경에 지급될 예정이다.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들은 기한 내 본인 명의 다이로움 카드를 보유하면 된다.

신청 당시 회사에서 퇴사 시 지급 중단 신고해야 하고, 3개월 이내 중소기업에 재 취업할 경우 서류를 갖추어 지급 재개 신고할 수 있다.

또한 지원 기간에는 익산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유지해야 하고 국제 및 지방세 체납시 지원 중단된다. 시 관계자는 "익산형 근로청년수당으로 청년과 중소기업이 모두 만족할 길 바란다"며 "지역 청년들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기자

익산시, 상수도 현대화로 안전한 물 공급

익산시가 노후 상수도 현대화 사업으로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물 공급에 나선다.

시는 K-water 전북지역협력단과 함께 추진 중인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그 일환으로 최근 블록시스템 구축과 노후 상수관 교체공사에 착수했다. 효율적인 급수지역 관리를 위해 전체 급수구역을 53개 소블록으로 분할하는 블록 구축 공사와 중앙동 일대를 시작으로 78km 구간에 대한 노후 상수관 교체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ICT기술을 접목하여 수질과 수압, 유량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유지관리 시스템 등을 구축한다.

이번 사업은 노후 상수도 정비를 통한 수도사업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되고 있다.

시와 K-water는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해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으며 오는 2024년까지 총사업비 557억원을 투입해 전 지역 블록시스템을 구축하고 신형급수지역 유수율을 85%까지 끌어올릴 예정이다.

전병희 상하수도사업단장은 "시민 물복지 향상과 사업의 효과를 위해 꼭 필요한 공사인 만큼 공사 현장의 불편 사항에 대해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 당부드린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물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익산=이재춘기자

익산시, 일반 의료체계 전환 '감염병 인프라' 조성

익산시는 원활한 일반 의료체계 전환을 위해 감염병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조성한다.

보건소는 지난 10일 익산시 의사회장과 관내 병원장(원광대학교병원, 익산병원, 수성병원, 온누리아동병원, 익산제일병원 등)들과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방안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다.

시는 경증이 많은 오미크론 변이 특성으로 입원 수요는 감소하고, 재택치료와 외래 진료센터 수요는 증가함에 따라 일반 의료체계로 단계별 전환을 추진한다. 4주간의 이행기(4.25.~

5.22.)를 거쳐 안착기로의 성공적 전환을 위해 감염병 인프라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재택 치료관리 의료기관을 최대 6개소·800명 관리역량을 확보했으나 이행기 중 고위험군 집중관리 체계는 유지하며 재택치료자 감소에 따라 관리기관 및 최대 관리 가능 인원을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반면 외래진료센터는 지속 확충해 대면·비대면 진료를 통한 원활한 재택 치료를 지원하고, 안착기이벤달 23일 이후 재택 치료체계는 중지하되, 동네

병원에서 대면 진료를 하기 위해 외래진료센터 지속 확충할 계획이다.

음압격리실이 아닌 일반병실에서도 코로나19 환자 진료 및 입원이 가능하게 전담병원을 축소하고, 일반의료기관의 입원 수요에 탄력적인 대응을 위해 병상 확보를 병원장들에게 당부했다.

이진운 보건소장은 "외래진료센터를 지속 확충하고 일반병상 확보를 통해 일상 회복과 원활한 일반 의료체계 전환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익산=이재춘기자

군산시, 2022년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 시작

군산시가 시민대상으로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을 군산시 자원봉사센터, 금강노인복지관, 희망루아파트, 수송동 행정복지센터, 내운종합사회복지관, 중앙동 주민센터 등 6개소를 선정해 실시한다.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은 5월부터 오는 12월까지 시민 누구나 집 근처 디지털 배움터에서 수준별 디지털 역량 교육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교육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디지털 전환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 사회 경제적 디지털 격차를 심화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실시한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 배움터는 금강노인복지관 대어면 주민센터, 군산시자원봉사센터, 희망루아파트 회의실 등에서 실시돼 연인원 3,700명이 수강했다.

교육내용은 스마트폰 사용법, 배달의 명수 등 앱사용법, 인터넷뱅킹, 키오스크 사용법 등 실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일상생활 밀착형 교육을 실시하여 시민들의 큰 만족도를 끌어내고 있다.

/군산=김판근기자

지역 소식통

황철호 군산시장 권한대행 시장활성화 위해 현장 시찰

황철호 군산시장 권한대행이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주요 사업 현장을 시찰했다.

군산시는 황 권한대행이 대야시장(주차환경개선사업), 역전·명산시장(시설현대화사업)을 방문했다고 11일 밝혔다.

대야시장은 전통 5월장이 열리는 곳으로 군산시민 뿐만 아니라 많은 관광객이 찾는 곳이다. 또 역전·명산시장은 소상공인들이 자신의 터전에서 삶을 영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군산의 밑바탕이 되어온 역사가 있는 시장이다.

시는 대야시장에 주차공간을 171면을 추가 조성할 계획으로 이달 말 준공을 앞두고 있다.

역전·명산시장은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공모에 선정돼 기존 천막 아케이드를 철거하고 현대식 아케이드를 설치해 보다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갈 예정이다.

/군산=김판근기자

군산시, 전복도 합동 고액체납자 징수 활동

군산시는 고액체납자 대상으로 가택수색 및 동산인류 등 강력 활동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징수 활동은 전라북도와의 시·군 광역징수기동반을 운영해 실시할 예정으로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고액·상습체납자를 대상으로 선정해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달에는 광역징수 기동반과 합동 출동해 고액체납자 A씨 등 사업장 및 거주지를 방문, 지방세 납부 독려를 실시한 바 있다.

또 체납자에게 분담을 유도, 일부 체납세를 납부하도록 했으며 납세의무 거부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의 공공정보등록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병행해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재산이 압류되어있는 장기 체납자에 대해서는 실익 분석 후 공매처분을 진행하고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군산=김판근기자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